

ANTI-FREEZE

이상하고 아름다운
Beautiful Stranger

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술이 버무려진 신(新)-생태계,
'디지털(Digital) 생태계'의 모습 상상해 보기.
그리고 이상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는 인간들의 생각 엿보기.

그림: 김규호

ANTI-FREEZE

안티-프리즈

ANTI-FREEZE(안티-프리즈)는 ‘~을 방지하다’라는 뜻의 접두사 ‘anti-’와 ‘얼어붙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freeze’의 합성어이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과 자연 생태계가 단절 없이 동등한 상호작용을 계속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매거진 『ANTI-FREEZE』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2023년 환경 + 예술 프로젝트 《ANTI-FREEZE: 얼어붙지 않을 거야!》와 연계하여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생태계를 이해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의 ‘생태 감수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f(x), 「Beautiful Stranger」, 2012.

걸 그룹 f(x)가 2012년 발매한 앨범 『Electric Shock』의 수록곡이다. 「Beautiful Stranger」의 가사에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던 소녀는 낯선 이를 만나, 배타적인 시선 대신 열린 마음으로 그와 소통한다.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 올 낯선 미래로 향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이상하지만 아름다운(Beautiful Stranger) 세계를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며!

편집자 X 𐄂𐄂𐄂	3	시선 담기 II_타로인류학	15
말도 안 돼, 하지만 마음에 들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 되어야 하는가		타로카드는 메타버스의 꿈을 꾸는가	
특집 기사	4	편집실 PLAYLIST	15
불확실한 미래, 이상한 미래, 아름다운 미래		Vol3.이상하고 아름다운	
작가_소수빈	8	호모 프롬프투스(Homo Promptus), 이번엔 맛만 볼게요.	16
신(新)－생태계의 청사진 그리기			
어린이와 함께하는 ANTI-FREEZE!	8		
나만의 미래식물을 신나게 상상해보자!			
시선 담기 I_턱피는여자들	12		
디지털생태계, 그 불완전성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사람			
Hello, Mx.양(Yang)?	14		
영화 〈애프터 양〉			
오늘 이 계절의 레시피	14		
냉이의 색다른 변주, 냉이된장리소프			



표지이야기

그래픽 틀과 시를 활용해 무작위로 만들어 낸 이미지를 디지털 기법으로 가공해 콜라주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상하고 아름다운 미래 세계로 나아가는 인간의 뒷모습을 그려냈다.

그림 김규호
INSTAGRAM @kyuhokim

편집자 X 𐄂𐄂𐄂

말도 안 돼, 하지만 마음에 들어!

글: 강연섭(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원)	글: 김정민(작가)
--------------------------	------------

구름 위에 지어진 도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우주로 가는 여름휴가, 내 친구 반려 로봇. 90년대생인 내가 어릴 적 해마다 열린 미래 과학 창작 대회에 등장했던 단골 소재들이다. 어린이들의 손끝에서 저침없이 그려지던 낯설고 불안정한 것, 이상하고 논리를 거스르는 것, 그러나 아름답고 유쾌한 미지의 것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를 포함한 우리는 더이상 이상한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설렘에 박한 어른이 되었다. 그래야만 어른의 자격을 얻는다는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이가 들수록 으레 낯선 아름다움에 대한 담론은 빈곤해지기 마련이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순수했던 시절의 유물처럼 취급받곤 한다.

이번 호를 준비하면서 지난 1, 2호 때보다는 용기와 상상력이 조금 더 필요했다. 실존하는 ‘나’(1호), 그리고 함께하는 자연의 생명들(2호)에 집중하여 탐구할 때와는 달리, 관찰도 기록도 되지 않은 미래 생태계를 다루는 것은 실체가 없는 어떤 것의 형태를 묘사해야 하는 것처럼 막연함과 불안함이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은 그리 쉽게 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의 지평선 너머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는 과연 어떤 경이로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미래를 상상해 보자고 결심한 나란 어른이 가장 먼저 놓아 보기로 한 것은 바로 현상 유지에 대한 관성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익숙함을 전제로 한다. 예측 가능한 일상, 아는 맛의 편안함, 오랫동안 믿어온 현상과 같은 익숙함에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지은 가능성의 경계 허물기를 시도하고자 했다. 같은 경로만 달리던 현상 유지의 레일을 벗어나 무한하게 뻗어 있는 가능성의 들뜬에서는 것, 그것이 낯선 미래를 포용하기 위한 시작이 아닐까? 그리고 돌이켜보면 우리의 어린 시절이 그랬고, 어린이라는 존재의 시선은 경계와 거침이 없다.

물론 익숙함을 벗어나는 경험은 우리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이 경험은 종종 호기심, 용기, 모험심과 같은 열린 마음으로 치환된다. 그리고 이러한 낯설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누군가는 단지 어린 시절의 향수가 아니라 혁신과 진보를 위한 핵심 비전으로 삼는다. 실제로 누군가가 어린 시절 꿈꿨던 환상은 오늘날 정보 통신 기술, 인공 지능, 우주 탐사 등의 모습으로 현대인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자,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것들에 관해 다시 한번 즐겁게 이야기해 보자.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낯선 미래를 어린이처럼 기대하고 경계 없이 상상해 보자. 그리고 나는 낯설에 대한 설렘을 잊은 채 어른이 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내 어린 시절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영감의 등불이었다고.

강연섭	INSTAGRAM @excitinglunch	김정민	INSTAGRAM @jminutemaid WEBSITE www.jminutemaid.com
이 프로젝트의 기획자이자 편집자 강연섭은 기술매체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 기획 일을 하고 있다. 기술매체를 연구해 세상을 인지하는 인간의 감각을 확장하는 아티스트들의 예술 활동에 특히 흥미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인간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우주의 기운이 나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으로 인도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당장은 작고 무해하고 에너지 넘치는 인간들과 손잡고 우리의 엔트로피를 무한히 높여 보기로 했다.		김정민은 건축을 기반으로 공간을 구축하는 작업을 포함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다. 공간에 살아가는 주체들에 대해, 그 중에서도 공간이 없는 주체들의 공간에 관심이 많다. 이때 주체는 인간만을 상정하지는 않으며, 식물과 동물, 생물과 비생물, 건축과 자연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서울퀴어문화페스티벌의 멤버로 2019년부터 활동하며 퀴어이슈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현재는 도시연구자로서 도시에 대해 연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근간으로 『즐거운 남의 집』이 있다.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 발행인: 유인택(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편집인: 박종강(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장) | 기획: 강연섭 | 코디네이터: 조소정 | 책임편집: 강연섭, 김정민 | 글: 강연섭, 김정민, 이지수, 이후석, 정수경, 진민섭, 홍보라 | 디자인: 김정민 | 표지 일러스트: 김규호 | 인쇄: 지구나무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 학예연구팀: 진수정(총괄, 학예연구팀장), 최혜경, 안진희, 김형준, 박민주 | 홍보: 문채원 | 기획운영팀: 문형순(기획운영팀장), 최동욱, 강병현, 심형률, 배윤주
시설지원: 이홍일, 박성모, 염준선, 이민형 | 전시운영: 박희정, 황수진, 유세정, 장정민, 이경아 | 안내: 김혜선, 장현주, 문효림, 김수연 | 미화: 엄현진, 임미경, 강옥란, 김윤

Copyright 2024.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All rights reserved.

이 간행물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2023 환경 + 예술 프로젝트 전시 《ANTI-FREEZE: 얼어붙지 않을 거야!》와 연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본 간행물에 실린 글과 사진 등은 자료 제공자 및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 <https://ngcm.ggcg.kr/> 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X 𐄂𐄂𐄂

불확실한 미래, 이상한 미래, 아름다운 미래

글: 강연섭(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사)



불확실한 미래, 이상한 미래, 아름다운 미래 Made by DALL-E

『ANTI-FREEZE(안티-프리즈)』 제3호 『이상하고 아름다운』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살아가게 될 미래의 모습을 잔뜩 상상해 보았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술이라는 요소가 버무려진 ‘신(新)-생태계’, 즉 ‘디지털(Digital)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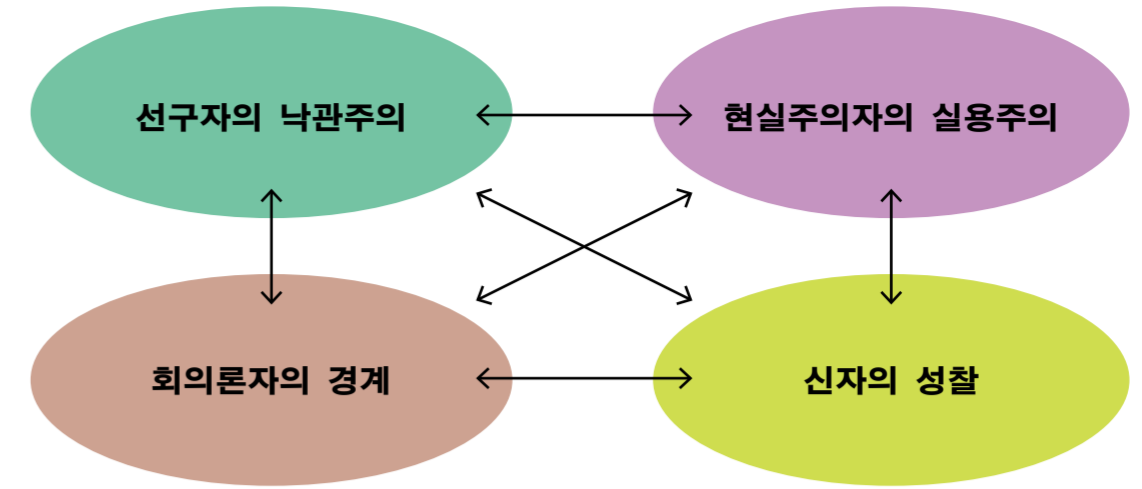
『ANTI-FREEZE(안티-프리즈)』는 지난 호들에서 끊임없이 생태계 구성 요소들의 공존과 존중에 대해 피력했다. 하지만 대상은 ‘인간’과 ‘자연’에 한정했었다. ‘기술’이라는 요소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인간과 자연 모두의 삶에 침투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생태계의 구성요소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술이 그저 인간의 도구일 뿐인 시대는 지났다. 기술은 그 자체로 인류의 존속을 위협할 수도, 근본적인 생명체의 실존 문제를 뿌리째 흔들어 댈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각도에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답하며 사려 깊게 접근해야 한다. 인류가 이미 ‘디지털생태계’의 일부임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먼 미래에도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잘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그래서 미래를 맞이하는 인간들에 대한 탐구로 이번 호를 시작하려고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맞이하게 될 불안하고,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미래를 포용하기 위해 현재의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인간적 소양에 대한 이야기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과 그로 인한 불안감을 견디며 역사적인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해 왔다. 특히 본격적으로 근현대의 시작을 알리는 자본주의, 국가주의, 산업화 등의 확장은 국제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인류가 고민해야 할 과제의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해 왔다. 대공황을 겪으며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었지만 정부와 시장의 상호 견제가 핵심인 현대적 의미의 수정자본주의 체제가 탄생했고, 복지정책과 같은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냉전시대를 지나며 세계는 사회주의진영과 자본주의진영으로 양분되어 극심한 대립과 긴장의 시대를 맞이했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안보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였고, 이 시대의 군사경쟁은 인간의 우주 진출을 열어 준 눈부신 기술 발전의 시발점이었다.

그렇게 현대라는 미래를 맞이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전 지구적 규모의 위기인지 기회인지 모를 미래의 문턱을 밟고 있다. 기후 변화와 전염병 등의 자연재해는 지구라는 인류의 터전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편리함과 효율성을 위한 지나친 속도의 과학기술 발전은 지구의 위기를 가속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도구이며,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틀림없다. 위기를 만들었지만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한, 똑똑한 우리의 친구 기술 말이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을 발명하고, 사용하고, 의존하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기술과 공존하는 미래를 그리기 위한 인간 군상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오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진보를 이끌고 구축하면서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들을 지켜줄 수 있었던 이유를 네 유형의 인간들에게서 발견해 볼 것이다. **선구자의 낙관주의, 현실주의자의 실용주의, 회의론자의 경계, 신자의 성찰.** 각각의 신념과 태도가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를 이룰 때, 복잡한 현대 사회의 과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지형을 탐색하기 위한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구자의 낙관주의

선구자이며 개척자들은 미래를 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관점 중, 혁신과 독창성을 통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를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보는 자들이다. 과학자, 기술자, 미래 지향적인 기업가 등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낙관주의는 과거 기술 발전의 성공과 겉으로는 무한해 보이는 인간 창의성의 잠재력에 힘입은 결과다. 진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구성원들의 변혁적 리더십은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구자 정신의 대표적인 예는 ‘유전자 편집 가위’라고 불리는 ‘크리스퍼-캐스나인(CRISPR-Cas9)’을 들 수 있다. 이는 문제 유전자의 특정 구간을 절단해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유전자 가위 기술로, 유전자 탐색기와 유전자 가위로 구성된다. 이 혁신적 기술의 발명은 그동안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유전병 치료의 새 시대를 열었다. 두 명의 여성 과학자 에마누엘 샤르팡티에(Emmanuelle Charpentier, 프랑스) 막스플랑크연구소 교수와 제니퍼 다우드나(Jennifer A. Doudna,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화학부 교수는 이 기술로 2020년 노벨 화학상을 거머쥐었다.



일명 ‘유전자 가위’로 불리는 크리스퍼-캐스나인(CRISPR-Cas9). Made by DALL-E



유전자 편집 기술 CRISPR-Cas9 개발로 2020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제니퍼 다우드나(왼), 에마누엘 샤르팡티에(오). (이미지 출처: STAT News)

선구자들의 미래를 향한 낙관주의적 태도와 혁신적 결과물은 사회 전반에 영감을 주고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이자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현실 상용화의 길은 멀고도 까다롭다.

현실주의자의 실용주의

현실주의자들은 선구자의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의 잠재력을 옹호하면서도 그 한계를 인정하고 현재 상황의 실용성을 우선하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 낙관주의와 실용주의를 적절히 취하여 지속 가능하고 현실화가 가능한 경로를 구축한다. 대표적으로 엔지니어, 도시계획자, 정책 입안자인 그들은 기존 인프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미래의 전염병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해 공공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현실에 기반을 두고 과제를 수행한다.



스마트시티에서 가능한 서비스들을 도시화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OpsNow)

그들이 최전선에 투입되어 세계 곳곳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있다. 바로 ‘스마트시티’라 불리는 혁신도시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사용하여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도시를 뜻한다. 다양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들 중 스마트시티를 이끄는 핵심은 바로 ICBM이라고 불리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의 융합 기술이다. ICBM 융합 기술이란, 사물인터넷 센서가 수집한 공공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분석하여 개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모바일로 전송하는 기술이다. 이 핵심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도시 인프라, 교통, 환경, 안전, 주거, 복지 등의 전 영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두바이, 그리고 대한민국 등 많은 국가에서 앞다투어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싱가포르의 비좁은 국토에 비해 과밀한 인구조로 인해 교통, 주택, 환경 등의 도시 문제가 항상 존재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인 사례로 꼽힌다. 심지어 싱가포르의 스마트시티를 넘어 2014년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정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국가로 변모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계획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정부 및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1,400개 이상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인증 시스템 싱패스(Singpass), 도시 전체를 3D 가상 현실로 구현한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정식 도착률이 100%에 가깝다는 자율 주행 셔틀버스 등은 성공적인 스마트시티의 사례가 되고 있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로 실현한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실제 도시의 도로, 빌딩, 주택 등 주요 시설을 가상의 공간에 그대로 옮겼다. 가로수, 육교, 공원 벤치, 가로등을 비롯한 모든 구조물에 아이디어를 부여, 상세한 정보를 담았다. 전 국토를 가상현실로 구현한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는 AI, IoT,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도시 계획부터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실제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예측, 통제한다. (이미지 출처: OpsNow)

현실주의자들은 미래 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들은 기술 혁신이 약속하는 미래와 현실 세계의 제약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미래를 향해 한 번에 한 단계씩 실천적 걸음을 옮긴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상용화의 이면에는 늘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회의론자의 경계

그러나 이러한 미래로의 전진 속에서 회의론자들은 기술 진보의 어두운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주의를 촉구하고 우려를 표한다. 특히 스마트시티의 핵심 기술인 정보통신기술(CT)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사회 감시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로 쓰일 수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정보 수집, 생체 인식을 활용한 모니터링, 블록체인을 활용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소설 『1984』에서 그린 전체주의에 잠식된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회의론자들에게 고도화된 과학기술의 발달은 개인정보보호의 권리가 침해되고 개인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통제를 받는 잠재적인 디스토피아적 미래의 전조이다.

그리고 회의론자들이 경계하는 미래, ‘오웰리언 사회(Orwellian Society)¹가 중국에서는 ‘사회 신용 제도’와 ‘텐왕(天網)’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사회 신용 제도’란 빅데이터 기술과 감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행동 점수’를 매겨 이 점수를 보상과 처벌의 잣대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텐왕’은 ‘하늘의 그물’이라는 뜻으로, 안전인식이 탑재된 약 2천만 대의 인공지능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을 감시한다. 이를테면 ‘텐왕’으로 잡아내고 ‘사회 신용 제도’로 평가하는 식이다.

사회 신용 제도는 이렇게 작동한다.

1. 국민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금융 상황, 범죄 기록, 소셜미디어 활동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인의 인간관계까지 수집된다.
2.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일련의 지침에 따라 대상자들을 평가하고 신용점수를 부여한다.
3. 높은 점수를 받은 자는 책임감이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자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교육, 의료, 교통 이용과 같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가 거부되는 등의 처벌을 받는다.

중국 정부는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한다. 바로 ‘신용 사회 건설’. 개인을 통제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을 장려하고 중국 사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누구에게나 보장한다는 ‘인권’에 대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자들이 진보한 기술이라는 칼자루를 휘었을 때 미래는 디스토피아에 가깝다. 회의론자들은 혁신을 실현하고 진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잠재적인 위험을 보는 눈을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질문을 던진다. 건강한 회의론자는 진보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향상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가치들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신자의 성찰

신자들은 앞서 다룬 인간 군상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그들은 미래를 예견하고, 인간 내면의 심연에서 답을 찾는다. ‘종교적 신념’은 불확실성과 불안의 시대에 한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든 미래를 받아들이 내면의 동기와 행동 지침을 제공해 왔다. 특히 현대로 오면서 과학기술로 인한 급격한 변화와 존재론적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기일수록 그들은 종교적 예언과 종말론의 프리즘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해석하곤 했다. 놀랍게도 지구 종말이라는 같은 미래를 예견했지만, 그들이 취하는 행동 양상은 매우 다양했다. 그중 양극단에 있는 사례는 내면의 성찰이라 할지라도 외부적 요소들과의 균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한다.



EEN 웹사이트의 첫 화면. “우리는 함께 건강하고 오염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라는 문구가 있다.

2.기독교의 생명 중시 철학을 기반으로 환경 보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s://creationcare.org/>

3.EEN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호 활동의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다. 골로새서 1:16-20, 시편 24:1, 마태복음 25:37-40. 이 구절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그의 일부이며, 따라서 모든 창조물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담고 있다.

신자들의 종교적 신념과 미래를 받아들이는 관점 사이의 건강한 관계의 열쇠는 외부 요소들-종교적 관점과 충돌된다고 여겨지는 과학, 합리성, 경험주의, 논리 등의 요소-과의 균형과 열린 대화에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인류 집단의 여정에서 신자들의 건강한 성찰은 개인들에게 공동선(共同善)이라는 보다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인간들의 내면에 자리한 공동선(共同善)이라는 목표는 창조물에 대한 연민, 평등, 정의, 배려 등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한다.

EEN(Evangelical Environmental Network, 복음주의 환경보호 네트워크)²의 사례는 종교적 신념이 어떻게 환경 운동에 영감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 EEN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생물 다양성 손실 등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돌봄’의 문제로 인식한다. ³ 지구 종말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들의 미션은 하나님의 생명을 돌보고 모든 피조물이 번성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보장하며, 성경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EEN은 환경 캠페인과 교육 활동을 하는 전 세계적인 풀뿌리 조직을 통해 지역 사회와 국가의 환경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이 사회적 책임과 부합할 때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종말론에 대한 극단적인 종교적 해석이 초래한 비극적인 집단행동의 사례도 있다. 1970년대 설립된 헤븐즈 게이트(Heaven’s Gate)는 기독교의 요소와 뉴에이지 영성주의, UFO 및 외계 생명체에 대한 신앙이 복잡하게 얽힌 종교 단체였다. 그들의 근본적인 교리는 지구가 곧 ‘재활용’되거나 정확될 것이며, 구성원들이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육체를 떠나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1997년 3월, 캘리포니아 랜초 산타페의 한적한 저택에서 헤븐즈 게이트 신도 39명이 집단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지상의 몸을 떠나 혜성을 따라가는 외계 우주선에 탑승해 인간의 고통과 물질세계를 넘어서는 영적 차원으로 올라간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사회와 이성적 판단으로부터 분리되어 특정 종교의 신념에 사로잡혀 인간의 삶과 합리적 판단을 잃어버린 극단적인 예를 보여준다.



종교단체 헤븐즈 게이트(Heaven’s Gate) 웹사이트. 2022년까지도 액세스가 가능했다고 한다.

1990대 들어서며 프로그래밍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헤븐즈 게이트는 웹사이트 제작사를 설립해 많은 이윤을 남겼다. 1997년 종교 소멸 이후에도 20년 동안 웹사이트가 유지되며 미스터리로 남을 뻔했는데, 집단 자살 사건 이전 교단을 떠난 신자가 2022년까지 도메인을 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Tech Recipe)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진보는 인간의 조건을 벗어난 무엇에서 탄생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인간들의 다양한 관점과 태도를 탐구해 보았다. 각각의 인간 군상들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면, 관점의 다양성과 상호 협력이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인류의 집단적 여정에서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인간은 몇 가지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현실에는 훨씬 넓은 관점의 스펙트럼이 존재할 것이며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는 더욱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할 테지만 말이다.)

선구자들은 인간의 독창성과 기술적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의 무한한 잠재력을 탐구하고, **현실주의자**들은 선구자들의 낙관주의에 필요한 현실적 균형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연구한다. 이들을 통해 대담하지만 신중하게 미래로 전진할 수 있다. 또 **회의론자**들은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과 윤리적 함정에 대해 경고한다.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질문을 던진다. 마지막으로 **신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세계를 직면하면서 인간이 내면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는 시각을 제공한다. 연민, 평등, 정의, 배려 등의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키며 미래를 향해 내달리는 과정에서 인간의 정신과 모든 생명의 상호 연결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가 불확실하고, 이상하지만 어쩌면 아름다울 수도 있는 미래의 문턱에서 있는 지금, 어떠한 단일한 인간상도 이 복잡한 지형을 혼자서는 헤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낙관주의, 실용주의, 경제, 성찰과 같은 태도들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지구 생태계 안의 무한한 연결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인간의 사회적 대응 역시 다면적이고 상호 연결되어야만 한다.

두 팔 벌려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든, 혹은 불확실한 미래가 드리우는 그림자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든 인류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미래를 피할 수는 없다.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균형을 유지하며 열린 접근 방식으로 미래의 무수한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다. 다양한 관점들을 소중히 여기고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으로써 인류는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인간’을 정의하는 시대를 초월한 가치들을 지키면서, 그리고 기꺼이 혁신을 포용하면서 말이다.

신(新)-생태계의 청사진 그리기

글: 홍보라

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술이라는 요소가 버무려진 ‘신(新)-생태계’, 즉 ‘디지털(Digital)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ANTI-FREEZE(안티-프리즈)』 제3호 「이상하고 아름다운」의 아티스트는 소수빈 작가이다. 과학, 인간, 자연이 있는 미래의 모습을 그의 작품으로 만나며 우리는 미래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온갖 종류의 고정관념을 깰 준비를 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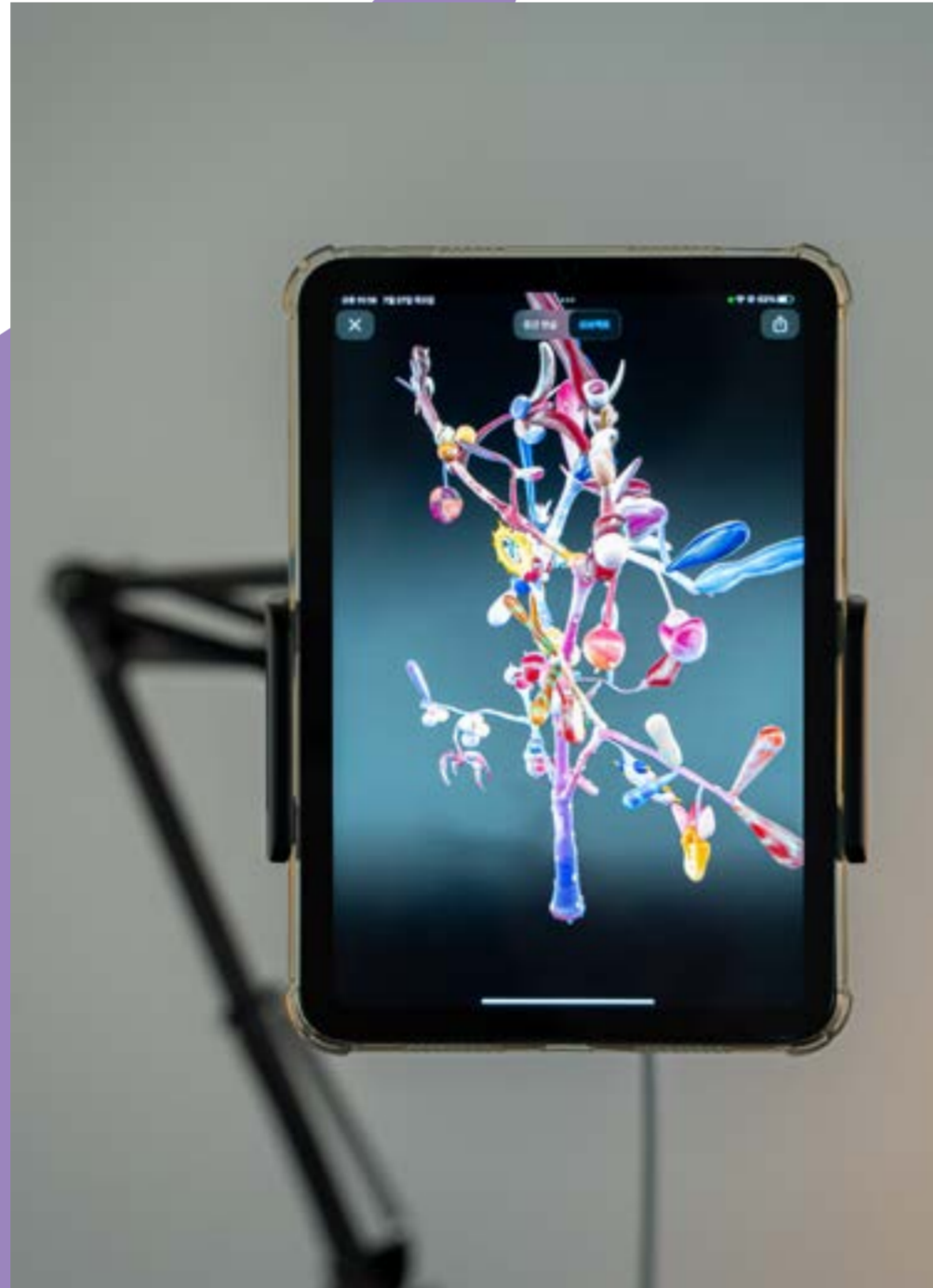


〈New-ecosystem : plant technology 2023-1 (turn around)〉, 2023
PLA, LED, 아크릴, 회전판 등, 가변설치

식물은 지구의 변화를 오랜 기간 동안 관찰하며 인간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식물들은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상에 산소를 공급하고,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물들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며, 또한 식물의 뿌리는 지표면을 안정시켜 다른 생물들의 서식처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 성장하는데, 이는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만드는 최초의 작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생태계를 구성하고 많은 생명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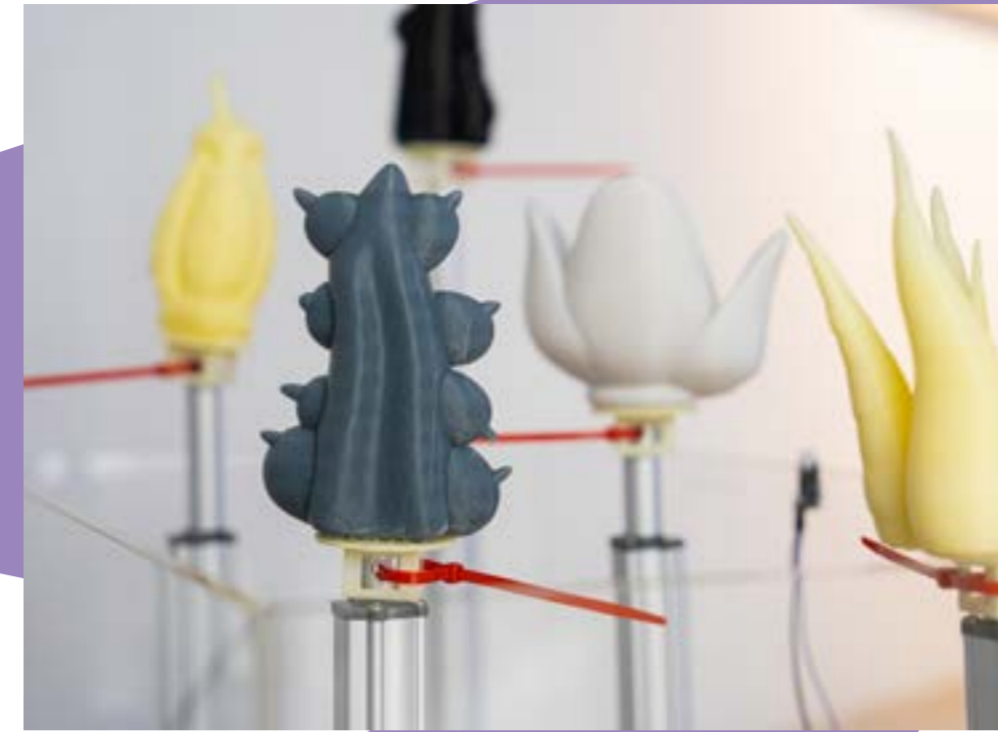
식물의 주요 기관으로는 뿌리, 줄기, 잎이 있으며 시기에 따라 꽃과 열매가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땅속으로 뿌리를 뻗어 물체를 지지하며 점점 깊게 땅에 파고들어 같은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식물이 물을 흡수하고 광합성으로 양분을 얻는 과정에서도 눈에 띄는 움직임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간과 식물 사이의 상호작용은 동물에 비해 다소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물들도 서로 소통하며 빛과 냄새 등을 통해 외부 환경을 감지하는 지각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식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식물의 또 다른 가능성을 조명합니다.

소수빈 작가는 식물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작업을 이어갑니다. 외부의 상황을 인지하고 주변의 환경을 파악하여 이동하는 식물, 혹은 외부의 조건에 반응하며 스스로 표현하는 식물, 조합하고 변형된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으로 재구성된 식물 등의 모습이 작업을 통해 제시됩니다. 작가는 식물에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결합해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상 현실(VR), 증강 현실(AR) 및 혼합 현실(MR) 등 최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가상의 공간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식물의 모습을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합니다. 또한 기계와 식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살아가는 식물을 구현하여 움직임이 없던 식물이 자유의지로 이동하며 원하는 장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생물학자들과 협업하여 과학적 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실험을 진행하거나 3D 프린팅을 활용해 가상의 생명체를 재현해 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작품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식물의 모습은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에 대한 반추를 이끌어 내며 오랜 기간 동안 식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변화시킵니다.



〈Swarm Intelligence 01 (무리지성)〉, 2023
영상, 수채화, AR iPad, 가변설치

범주를 벗어난 생명 공동체의 발견



〈New-ecosystem : plant technology 2023-2 (up and down)〉, 2023
PLD, LED, 아크릴, 모터 등, 가변설치

생태주의를 위한 움직임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들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듯 보였고, 결국 기술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절대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브뤼노 라투르는 누구도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며 우리 시대에 생태주의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식물에서 출발한 작가의 질문은 생태계 개념의 경계를 넘어, 생태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주변의 식물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주체성을 부여하며, 생태주의를 둘러싼 움직임을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시각에서 생태계의 문제와 해결책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 자체가 움직이고 의사를 표현한다면 어떤 소통이 가능할지에 대한 가정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인간-식물 간의 실질적인 소통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의도는 결국 생태와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며, 존재에 대한 깊은 사유 혹은 상호적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반응하는 식물〉, 2021
구부림 센서, 아크릴, 알루미늄, 식물, 아두이노, led, 78x130x197cm

본래 식물이 가진 한계 지점이 기술을 통해 극복되는 과정에서 식물 고유의 성질은 변화하게 되며, 기존의 식물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얻게 됩니다. 유전공학을 통해 새로운 식물의 종이 개발되거나,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진화된 생명체가 나타나고, 생명체간의 상호작용을 돕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상호 종속적 유전체가 개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화한 식물은 미래 생태계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변화된 식물이 여전히 동일한 '식물'이라는 범주 안에서 취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식물이 인간 혹은 동물과 같은 특성을 공유한다면 이를 여전히 식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생태계는 기존의 구분을 무력화하며 생명 자체에 대한 질문을 이끌어냅니다.

들리츠는 전통적인 서양의 사유 모델이 나무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새로운 사유 모델로 '리즘'을 제시했습니다. 리즘은 땅 속에서 뻗어나가는 뿌리줄기의 형태로, 이는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시작과 끝이 정해지지 않은 연속적인 연결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리즘은 사고와 학문의 매커니즘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생태계의 구성 방식으로도 드러나며, 이를 통해 수직적으로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는 희미해집니다. 관계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낯선 개념들을 통합하고 연결 짓는 방식은 기술과 함께 새로운 생태계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을 보여주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예술과 식물 사이의 위장〉, 2021
CO₂, 아두이노, 모터, led, 꽃가루 화석 이미지, 이산화탄소 센서, 알루미늄, 식물 78x78x196(h)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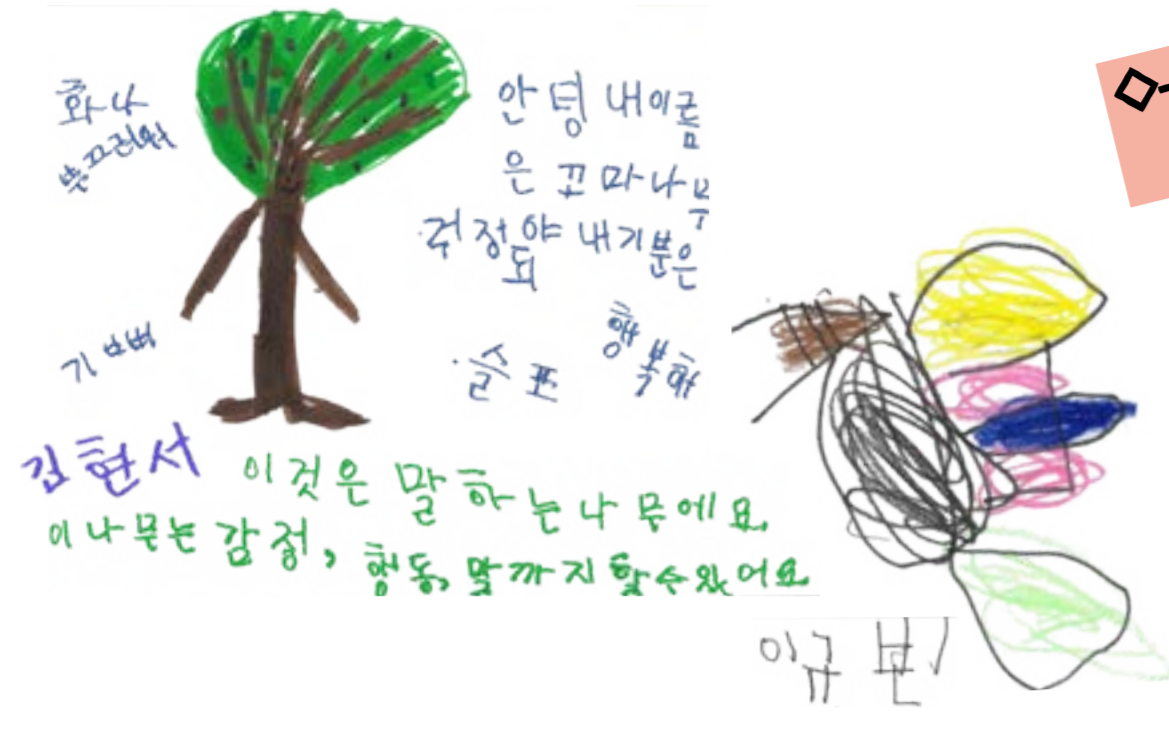
소수빈의 작품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 과학, 인간,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생태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현재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식물과 다양한 생명체, 그리고 미래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다양성을 부여합니다. 또한 작품에서 보여지는 여러 시각적 제안은 미래 생태계의 표본에 구체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며 기술로 인한 식물의 변화가 막연한 미래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일상의 한 장면이 되도록 합니다.

홍보라

파리8대학 조형 예술학과 학사 및 동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기획사, 갤러리, 미술관 등 다양한 미술 관련 회사 및 기관에서 근무하였으며 틈틈이 글을 쓰고 전시를 기획합니다. 일상의 예술이 현실적인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를 탐구하며 연구를 진행합니다.



어린이와 함께 나만의 미래 식물을 신나게 상상해 보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환경+예술 프로젝트 전시
《ANTI-FREEZE: 얼어붙지 않을 거야!》에 참여한 소수빈
작가의 작품에 영감을 받은 어린이들이 자기만의 미래
식물을 뽑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뽕내기!

박진성
비이그이다 이걸 먹고
희망을 얻어놓은 비이그이 이걸 먹는다. 그야말로
사랑이 이루어진 나중 어는 걸만한 경험이 있을지
구하는 것은
57구역이더거기는 모체인 이 있다. 비이그이 건강



이아인



무리끼 꼬이 꼬이 꼬이 꼬이 꼬이
술리 거가 사아 서불이 같이 하요.



디지털 생태계

“즉, 틀린을 만든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복수는 피할 수 없다. [...] ‘이 멋진 신세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어느 천재의 주도하에 천문학자, 생물학자, 기술자, 형이상학자, 시인, 화학자, 대수학자, 윤리학자, 화가, 기하학자 등으로 구성된 비밀 결사의 작품으로 짐작된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틀린, 우크바르, 오르비스 테르티우스」, 『픽션들』 (2011, 송병선 옮김, 민음사)

05:00 am
루틴 애플리케이션을 켜다. ‘기상(05:00)’, ‘물 한 잔 마시기(05:03)’, ‘영양제 먹기(05:05)’, ‘스트레칭(05:10)’, ‘아침 일기 쓰기(05:30)’, 각각의 슬롯에 ‘확인’ 버튼을 누른다. 각각 다른 색상의 동그라미 다섯 개가 화면에 나타난다. 물을 마저 마시며 지난 한 달간의 루틴을 살펴본다. 찍혀있는 동그라미의 숫자대로 내가 루틴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14:30 pm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에 접속한다. 다음 달 발행될 뉴스레터를 기획하기 전에 지난달 구독자들의 반응을 살핀다. 리뷰를 먼저 살핀다. 이후에는 뉴스레터 오픈율, 클릭률, 수신 거부율 등의 숫자를 해석한다. 약 천 명의 구독자가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남겨준 따뜻한 글에서 혹은 메일을 열어보는 행동을 통해서 스크린 너머의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불안정성을



Made by Adobe Firefly

아침 5시, 3개월 째 이 시간에 일어나는 중이다.
‘단발머리’ ‘한국여성’ ‘iPhone 14Pro’, ‘물 한 잔’ 등의 키워드로 프롬프트를 입력했다. 배경은 생생형 채우기로 따로 현실의 이미지를 넣어달라고 했다.



Made by Adobe Firefly

‘수치분석’, ‘배경에 숫자와 그래프’, ‘두 명의 아시안 여성’ 등을 입력했다.

08:00 am
이메일을 열어본다. 메일함엔 간밤에 온 업무용 메일 몇 통과 구독하는 뉴스레터들이 쌓여있다. 다음 주에 프랑스에 있는 동료와 회의한다는 메일. 디자이너의 자료 요청 메일. 곧 출간될 책의 책임 편집자에게 도착한 장문의 메일 등등. 우선순위 별로 열어보고 중요한 내용과 날짜를 업무용 다이어리에 메모한다. 동시에 해당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회사용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에 표기해 둔다.

09:00 am
하루 종일 켜놓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슬랙과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노션. 재택근무를 하는 동료와도 협업 관계의 디자이너와 편집자 혹은 기획자와도 유연하게 논의하도록 돕는다. 이 도구 덕분에 사무실이 필요 없다. 공유 오피스나 서재에 앉아서 어디든 누구든 자유롭게 연결된다. 디지털 세상에서 만나기로 합의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일에 대한 책임감만 있으면 된다.

12:50 pm
점심시간을 이용해 유튜브를 켜다. 해외에 사는 누군가의 일상(v-log)을 본다. 몇 해 전, ‘해외 취업’이라는 키워드로 우연히 알고리즘에 뜬 채널이었는데, 최근에 아기를 낳았단다. 본 적도 없지만 응원하는 마음.

17:00 pm
인스타그램을 켜다. 지난달부터 준비한 거래처와의 이벤트 피드를 올린다. 회사 계정 팔로워 대상으로 광고 의뢰가 왔기 때문이다. 팔로워 개개인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 패턴을 미루어보아 ‘어떤 연령대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어떤 의사결정을 추구하며, 어떤 사회를 꿈꾸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20:00 pm
이사를 준비하며 ‘당근’이라는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정리할 물건들을 업로드했다. 하루 종일 ‘당근’, ‘당근’하고 알람이 울리더니 거래가 성사됐다. 약속한 지점에서 누군가를 기다린다. 내가 그에 대해 아는 건 닉네임 뿐이다. 조금 기다리니 5060대 남성이 “혹시.. 당근이세요?”라고 묻는다. 나의 것이었던 책상과 의자를 차에 실었다. 우리는 인사했다. 구매 후기를 남긴다. ‘천절해요’, ‘내가 있는 곳까지 왔어요’

22:40 pm
프랑스에 있는 동료와 신나게 메시지를 보낸다. 8시간 시차를 고려하면 지금이 최적이다. 이럴 땐 그가 언제나처럼 옆에 있는 사람 같다. 그를 통해 듣는 반가운 이름들이 하나둘씩 쌓이면 세상이 과연 넓은 걸까 싶기도 하다.

루틴 애플리케이션 캘린더에 찍힌 다섯 개의 동그라미로 얻은 지난 시간의 나.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넘어 함께하는 동료들과 친구들.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등 특정 서비스를 통해 모인 공동의 목표와 세상을 추구하는 스크린 너머의 사람들.
물건을 매개로 만난 동네 주민들.

익숙한 현대인의 하루다. 그러나 이 현상을 조금 더 비집고 들어가 보자면, 인간은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digital) 생태계를 생활 터전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디지털 생태계란 네트워크가 만들어 내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개인과 기업 간, 개인과 정부, 시민사회 등이 접점을 공유하여 초연결 환경을 이룬 유사 생태계다. 이곳은 『레디 플레이어 원』 등과 같은 SF소설에서의 묘사처럼 화려하고 독립된 세계가 아닌 -머지않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지만-, 일상 어디에나 묻어있는 생태계에 가깝다.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터치할 수 있는 디지털 세포가 있는 것처럼, 물리적 생태계와 디지털 생태계는 더 이상 양분할 수 없다. 두 세계의 교집합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두 생태계가 어찌면 합집합으로 변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중요해지는 것은 무엇일까. ‘생태계’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이는 영국의 식물생태학자 아서 탠슬리로, 1935년 과학 전문 학술지 <에콜로지>에 생태계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했다. 생태계가 담은 중요한 의미는 뚜렷한 경계가 있는 대상이고 생태계 내에서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중요하다는 것.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 요소는 ‘호혜성’이다. 한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닌, 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공유된 비전으로 인간을 연결하고 행동을 유발한다.

그러나, 디지털생태계에는 하나의 맹점이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나를 노출해야 할 때나 뉴스레터의 구독이나 소비 등의 행동 패턴으로 나라는 존재가 특정될 때, 거대 테크 회사들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쿠키 사용을 허용할 때, 순간순간 스크린 너머의 대상이 ‘인간’이라는 존중과 자각이 없다면, 인간은 0과 1이라는 데이터가 된다. 디지털생태계가 호혜성이 아닌 자본의 힘으로 추동될 때,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어디에도 없게 된다. 아직 디지털 생태계에는 법률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작게는 정보 노출부터 심각하게는 사이버불링 등의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일어난다. “한국에서는 길에서 모르는 누군가에게 꿀밤 한 대 맞는 것보다, 가상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당한 무차별적인 폭언, 유언비어, 신상정보 노출 등의 법정 형량이 훨씬 적다.” 한 사이버불링 피해자의 증언이다.

인류에게 필수불가결한 장소가 되었지만, 불완전한 디지털생태계에는 인문학과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인간을 알고자하는 학문과 스크린 너머에 있는 존재가 사람임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음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구성요소들은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 멋진 신세계, 가상의 생태계에는 사람이 산다.’

완성하는 것은



Made by Adobe Firefly

AI가 묘사하는 ‘디지털생태계’, 스크린 너머에 인간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으나, 거기까지는 아직 어려웠다.

결국



정수경
INSTAGRAM @mee.mee.jung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후, 패션지, 예술지 에디터 생활을 하다 프랑스로 갔다. 파리1대학 미술사학과 학사, 건축사학과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건축 큐레이팅 분야 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독립 큐레이터로 글과 전시를 만들었다. 그러다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 인문학베이스 콘텐츠 기획사 ‘후주(퇴근녀자들)’를 창업했다.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내 삶에 물어 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7일 24시간 일하면서 산다. ‘시선은 가장 미시적인 형태의 권력’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는 가를 예민하게 선택하는 중이다.

사람



〈애프터 양〉

개봉	2022(한국)
국가	미국
상영시간	96분
장르	SF, 드라마
감독	코코나다
출연	콜린 파렐, 조디 터너 스미스, 저스틴 H. 민, 말레아 엠마 찬드로워자야 등
등급	전체 관람가

Hello, Mx.양(Yang)?

미래적 요소와 가상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만드는 SF 장르에서 인간을 닮은 로봇, '안드로이드'는 오랫동안 매력적인 소재로 작용해 왔다. 안드로이드의 근간이 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그대로 구현하려는 기술이다 보니, 많은 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듯하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인간과 아주 비슷해질 정도로 발달한 세계관을 그려내는 작품이 많다. 많은 작품들에서 안드로이드는 주로 감정을 깨우쳐 인간과 교감하거나, 반란을 일으켜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곤 한다.

영화 〈애프터 양〉의 배경도 고도로 발달한 '테크노 사피엔스(안드로이드)'와 복제인간이 존재하는 근미래이다. 주인공인 테크노 사피엔스 '양'이 아예 쓸 수 없이 고장나버린 시점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양'은 더 이상 깨어날 수 없지만, 그를 구매한 가족은 그의 기억을 재생할 수 있게 된다. '양'이 고장나기 전, 조금은 그를 성가시게 여겼던 주인공 부부는 '양'의 기억을 따라가며, 비로소 그의 존재에 대해 고찰하게 된다.

가족들이 '양'과의 대화와 기억을 더듬어 그의 존재를 고찰하는 과정은 미래의 모습이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양'이 노자의 존재론을 예로 드는 철학적인 대화를 한 기억은 마치 근미래에 우리가 하게 될 사실적인 고민으로 느껴진다.

기술,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다. 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 열풍부터,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의 뜨거운 저작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최근에는 문장만으로 고품질 영상을 생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소라(Sora)까지 등장했다.

빠르게, 더 빠르게 학습하는 인공지능은 어느새 우리 눈앞에 '양'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양'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지수
INSTAGRAM
@_ztudio

포스터 출처: A24

오늘 이 계절의 레시피

냉이의 색다른 변주
냉이된장리소토

봄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냉이. 냉이 하면 생각나는 조리법은 역시 향긋하고 구수한 냉이 된장찌개죠. 하지만 된장찌개가 지루해졌다면, 된장 리소토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된장과 리소토라니, 위화감이 들기는커녕 냉이가 전해주는 새로운 매력에 놀라게 될거예요. 올리브유에 볶은냉이는 깊은 감칠맛을 내 마치 해산물을 넣은 것 같은 풍미가 느껴진답니다.

1인분
냉이 50g | 밥 1공기 | 생크림 1컵 | 미림 1작은술 | 된장 1큰술 | 양파 1/4개 | 다진 마늘 1큰술
페퍼론치노 3개 | 소금 약간 | 올리브유 1큰술 | 후추 약간

집된장을 사용하면 좋지않으면 시판 짜게된장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 1.냉이는 뿌리에 묻은 흙과 잔털을 칼로 긁어낸 후, 흐르는 물에 씻어 손질한다. 길고 질긴 냉이는 반으로 자르고, 작은 것은 그대로 사용한다.
- 2.양파는 5mm 크기로 잘게 잘라 준비한다.
- 3.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과 양파를 넣어 볶다가 페퍼론치노를 부수어 넣는다.
- 4.마늘과 양파 색이 노릇노릇해지면 냉이를 넣어 숨이 죽을 때까지 볶는다.
- 5.냉이의 숨이 죽으면 생크림, 미림, 된장을 넣고 잘 풀어준다.*
- 6.생크림이 보글보글 끓으면 밥을 넣고, 뭉치는 것 없이 잘 풀여지도록 저으면서 약 2분간 끓인다.
- 7.맛을 보면서 소금으로 간을 하고, 후추를 뿌려 마무리한다.

*된장은 숟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깨끗이 넣으면 뭉치는 것 없이 잘 풀려요.

*본 기사는 저자의 동의를 받아 「오늘 이 계절을 사랑해」(2023. 진민섭 지음, 세락선 사친, 세이클론)를 발췌/편집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진민섭 INSTAGRAM @huam3house

겨울엔 방어, 여름엔 초당옥수수를 놓치면 큰일 나는, 먹는 데 진심인 사람. 재료에 예민한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권속수'에서 근무하며 사계절 식재료에 대한 감각을 키웠고, 때마다 계절 재료 챙겨 먹는 즐거움을 깨달았다. 이후 백화점 식품팀, 푸드 스타트업을 거치고, 직전까지 브랜드 에이전시에서 F&B 콘텐츠를 만들었다. 취미는 집 앞 슈퍼에서 계절에 따라 바뀌는 식재료 구경하기. 특기는 "이건 꼭 먹어야 해!"하며 주변 사람들 집으로 초대하기. '제철 재료 전도사'를 자처하며 계절 식재료를 탐구하는 유튜브 채널 <후암동상춘집>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오늘 이 계절을 사랑해」가 있다.



이후석
INSTAGRAM @sir_hoo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5년차 건축 디자이너/타로리스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VR/AR 프리랜서로도 활동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타로에 진심이지만 타로를 신봉하진 않는다. 다만, 타로를 앞에 두고 오가는 대화와 생각의 힘을 믿는다.

저 또한 줌(Zoom)을 이용한 원격 타로를 부탁받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78장의 카드를 원격에서 직접 선택할 수 없으므로 뽑고자 하는 카드의 일정 배수, 예를 들어 3장을 뽑고자 한다면 15장 또는 24장의 카드를 제가 먼저 선별하여 깔아 놓고 내담자가 이 중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카드를 미리 선별하는 과정도 또한 내담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저조차도 결코 이 방식에 확신을 갖지 못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과정이 일반적인 대면의 상황과 같았습니다만, 모든 카드를 제대로 늘어놓은 것도 아니었고 내담자의 손으로 '직접 골랐다'라고 하기도 어딘가 의문스러운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서 5명의 타로를 보았고, 화상 연결을 종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다르지 않구나.'

다르지 않다고 느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잠깐 다른 경험을 하나 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친한 지인의 축하 자리에 초대받아 손님들의 타로를 봐준 일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유독 다른 분들의 차례에 수선을 피우다 어디 한 번 자신도 맞춰보라며 타로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다고

편집실 PLAYLIST

VOLUME TH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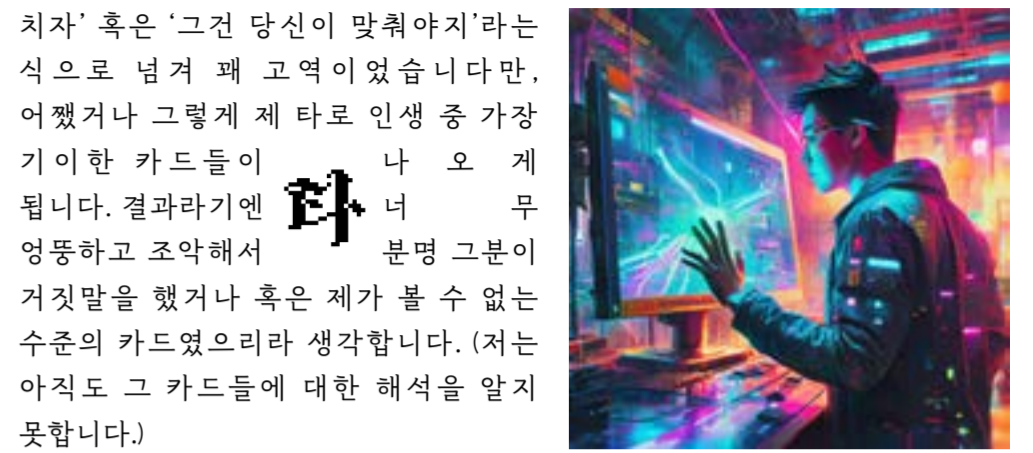
이상하고 아름다운 Beautiful Stranger

- 1.접속 — 김사월
- 2.차우차우 — 델리스파이스
- 3.시월의 현상 (Feat.남상아) — 도재명
- 4.민수는 혼란스럽다 — 민수
- 5.We Don't Need To Go There — 윤석철 트리오
- 6.www.사이버디지탈.com — 자우림
- 7.NEO SOUL — 실리카겔
- 8.Fast Forward — 전소미
- 9.Photographer (Feat. 정려원) — 엄정화
- 10.내일이 매일 (Feat. KOHO) — 신세하
- 11.MOMOM (몸마음) — 오혁,CIFIKA
- 12.재건축 — 향니

편집실 PLAYLIST는 유튜브 채널 '어박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인류학

3부: 타로카드는 메타버스의 꿈을 꾸는가?



Made by Adobe Firefly

타로는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점술입니다. 78장의 카드를 사용하여 현재 상황과 미래를 예측해 보는 이 방법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고민과 호기심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타로의 기본적인 형태는 카드를 고르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 상태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카드에 나타난 메시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러한 형태가 조금씩 변 화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화상연결 등, 비대면 시대의 영상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이른바 '원격 타로'가 점점 자리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줌(Zoom)을 이용한 원격 타로를 부탁받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78장의 카드를 원격에서 직접 선택할 수 없으므로 뽑고자 하는 카드의 일정 배수, 예를 들어 3장을 뽑고자 한다면 15장 또는 24장의 카드를 제가 먼저 선별하여 깔아 놓고 내담자가 이 중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카드를 미리 선별하는 과정도 또한 내담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저조차도 결코 이 방식에 확신을 갖지 못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과정이 일반적인 대면의 상황과 같았습니다만, 모든 카드를 제대로 늘어놓은 것도 아니었고 내담자의 손으로 '직접 골랐다'라고 하기도 어딘가 의문스러운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서 5명의 타로를 보았고, 화상 연결을 종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다르지 않구나.'

다르지 않다고 느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잠깐 다른 경험을 하나 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친한 지인의 축하 자리에 초대받아 손님들의 타로를 봐준 일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유독 다른 분들의 차례에 수선을 피우다 어디 한 번 자신도 맞춰보라며 타로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다고

어쩌거나 중요한 건, 내담자와 소통을 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공허함이었을까요? 반면 원격으로 타로를 봤을 때는 뜻밖에도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 다. 서로가 충분히 존중받으며 좋은 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감각. '아, 이 행위의 본질은 결국 거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입니다.

그래도 카드는 직접 만지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래 봤자 그림이 그려진 종이 몇 장일 뿐인걸요.

직접 대면하면 왠지 더 좋은 카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마치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카드가 뒤집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 사이에서 오간 마음과 말들에 대한 것입니다. 타로카드는 물론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픽셀이든, 전기신호든 무슨 상관 이 겠 습 니 까? 이렇게 본다면 외려 원격에서 보는 타로는 일반적인 틀을 벗어던진 꽤 합리적이고 멋진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혼란한 세상, 형태는 깨어지고 본질은 적나라한 요즘입니다. 원격이든 아니든, 혹은 타로가 아닌 무엇이어서든 관찰합니다.올 한해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사유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카드를 놓는 자리가 때론 멀더라도 받아들이는 자리는 늘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요.

'부정적 생각'을 쓰레기통에 버려보아요.

버렸으면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나와 다른 누군가 혹은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생각들.
이웃과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
상대를 밀쳐내거나 용서내기 위해 사용하는 색깔 짙은 언어가 만드는 증오.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폭주하는 악자에 대한 피어남과 조롱.
소수와 집단에 대한 권력적 고전관념과 내성화.
기타 버리고 싶은 부정적 생각들

우리는 이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고
어쩌면 그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 만큼이나
노동도록 간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행동

광고 이미지 제작: 이지수

호모 프롬프트(Homo Promptus), 이번엔 맛만 볼게요.

‘호모 프롬프트(Homo Promptus)’는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Homo)’와 사용자의 지시와 명령어를 뜻하는 ‘프롬프트(Promptus)’를 합친 말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능숙하게 부릴 줄 아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한 신조어이다. 디지털 세계를 사는 현대인들의 필수 역량이라고 하는데. 글썄, 제 2의 뇌를 얻을 것인지, 과도한 기술 의존증을 앓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번 호를 마치며, AI를 우리 매거진 제작의 동료로 영입할 수 있을지 ‘맛만 볼게요’



프롬프트(Prompt, 명령어) 입력: many people who fly the space, synthwave style
사용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AI Image Generator): Adobe Firefly



프롬프트(Prompt, 명령어) 입력: 휴대폰, 노트북, TV 등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면서, 여전히 두꺼운 종이책에 책갈피를 끼우고 다니며 연필로 메모하고, 밴드가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생음악을 듣고, 땀 흘리면서 밖에서 런닝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 마시며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술 한잔 하면서 노는 게 즐거운 30대 단발머리 한국인 여성의 모습을 그림체는 팝아트 스타일로, A4용지 가로 비율에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그려줘. (ChatGPT 자동번역기 '프롬프트 지니' 활용)

사용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AI Image Generator): DALL-E